

『반복하는 섬』과 카리브성 연구: 플랜테이션 개념을 중심으로*

이성훈
서울대학교

이성훈(2020), 『『반복하는 섬』과 카리브성 연구: 플랜테이션 개념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31(3), 99-122.

초록 이 논문은 안토니오 베니테스 로호(Antonio Benítez Rojo)의 『반복하는 섬: 카리브해 지역과 포스트모던 관점 (*La isla que se repite: El Caribe y la perspectiva posmoderna*)』에 나타난 플랜테이션 개념을 통해 카리브해 지역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카리브해 지역’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다양성으로 인해 내부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언어적 차이와 섬이라는 지형적 조건 그리고 역사적인 경험의 차이 등으로 내부적인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하는 섬』에 나타난 베니테스 로호의 사유는 카리브 지역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내부적인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베니테스 로호는 카리브해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플랜테이션이 구조적인 조건이었지만, 이 지역에 존재하는 내부적인 차이를 역시 플랜테이션 설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카리브해 지역에서 플랜테이션이 설치되는 시기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시기의 차이가 아프리카 노예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계 노예들이 다른 문화적 요인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했던 지역의 차이가 카리브해 지역 내에서 문화적 차이로 이어졌다. 베니테스 로호의 『반복하는 섬』은 카리브해 내의 지역적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카리브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텍스트는 기존 카리브 담론들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카리브해 지역 연구에서 문화 양상에 주목하고 이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던다면, 베니테스 로호는 문화 양상을 가져온 구조적 요인을 찾고, 카리브 내의 문화적 다양성과 공통점을 구조적인 요인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로호의 문제의식을 따라가면서 카리브 정체성 형성에서 플랜테이션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어 『반복하는 섬』, 카리브해 연구, 플랜테이션, 카리브 문화, 아프리카 노예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51198)

I. 서문

이 논문은 안토니오 베니테스 로호(Antonio Benítez Rojo)의 『반복하는 섬: 카리브해 지역과 포스트모던 관점(*La isla que se repite: El Caribe y la perspectiva posmoderna*)』에 나타난 플랜테이션 개념을 통해 카리브해 지역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텍스트는 “포스트모던”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지만, 포스트모던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고 카리브해 지역 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지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과 관련해 ‘카리브해 지역’이라는 포괄적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문화적, 역사적 다양성으로 인해 내부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서로 다른 언어와 섬이라는 지형적 조건 그리고 역사적인 경험의 차이 등으로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일반화’와 ‘차별화’라는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동일한 언어권이 갖는 공통성에 주목하는 입장이 있다. 카리브해 국가들 중에서 동일 언어권 국가들이 식민 경험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의 정치사회적인 구조 등에서 유사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비교적 동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카리브해 지역 연구는 스페인어권, 영어권, 불어권 등으로 언어권별로 분리되어 진행되기도 한다.

카리브해 지역과 라틴아메리카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복합성이 나타난다. 스페인어권 연구 경향에서는 카리브해 지역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분리하지 않지만, 주로 영어권 이론 진영에서는 라틴아메리카와 분리된 독립적인 지역 단위로 구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카리브해 지역을 독립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가 등장하고 있지만, 카리브해 지역이 갖는 개별성보다는 라틴아메리카 지역과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¹⁾ 여전히 카리브해 지역을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주변적인 범주로 인식하려는 태도가 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하는 섬』에 나타난 베니테스 로호의 사유는 카리브해 지역의

1) 최근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동향과 관련해서는 박구병(2019)를 참고하시오.

공통점과 내부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라틴아메리카와 차별되는 카리브해 지역의 문화적 특징은 무엇이고, 카리브해 지역 내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인 해답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론이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로 벌어진 원주민 정복, 식민화와 플랜테이션 설치,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도입 등이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의 비교적 공통된 역사적 경험이다. 이 경험이 카리브해 지역의 정체성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플랜테이션은 카리브해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아프리카계 노예의 유입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핵심적이다. 원주민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노동 집약적인 플랜테이션 농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계 노예의 유입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플랜테이션 농업과 아프리카계 노예의 대규모 유입을 통해 여러 문화와 인종들이 서로 접촉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카리브 정체성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베니테스 로호는 플랜테이션을 카리브해 정체성 형성의 구조적인 조건이라고 보지만, 이 지역에 존재하는 내부적인 차이들 역시 플랜테이션 설치와 관련해서 설명한다. 카리브해 지역에서 플랜테이션이 설치되는 시기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시기적인 차이가 아프리카 노예들의 활동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계 노예들이 다른 문화적 요인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었던 지역과, 그렇지 못했던 지역 사이의 차이 역시 카리브해 지역 내에서 문화적 차이로 이어졌다. 이런 카리브해 지역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접이, 혼종성, 네그리튀드, 크레올리테 등 다양한 담론들이 만들어졌다. 베니테스 로호의 『반복하는 섬』은 이런 지적인 흐름과 결을 달리하면서 카리브해 내의 지역적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요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베니테스 로호는 카리브해 지역을 설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파편성, 불안정성, 상호적인 고립, 뿌리 뽑힘, 혼합주의 등의 개념이 이 지역을 분석하는데 있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개념들은 외부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들로, 카리브해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내재적인’ 이해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는 카리브해 지역의 복합성 내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반복하는 섬’이라는 개념을 통해 조망하고, 카리브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카리브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텍스트는 기존 카리브 담론들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간 카리브해 지역 연구에서 복합적인 문화양상에 주목하고 이러한 문화 양상을 담론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면, 베니테스 로호는 문화적 복합성을 가져온 구조적 요인을 찾고, 카리브 내의 문화적 다양성과 공통점을 구조적인 요인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로호의 문제의식을 따라가면서 카리브 정체성 형성에서 플랜테이션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카리브해 지역과 카오스 이론: 반복과 차이

베니테스 로호는 카리브 지역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파편성, 불안정성, 상호적인 고립, 뿌리 뽑힘, 문화적 복합성, 역사적 산중성, 우발성과 임시성”(15)²⁾ 같은 개념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런 개념들이 카리브적인 실체를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식민적인 의도를 가지고 등장한 것으로 파악한다. 식민 시대가 종식되었지만 여전히 식민적인 의도를 지닌 언어를 가지고 카리브해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다. 즉, 탈식민의 시대가 되었지만 “콜론의 시대와 동일한 목적과 판단을 가지고 향해하는 일”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콜론이 서구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대륙을 바라보았듯이, “이 지역의 사회문화적 깊이를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거기”의 방식과 도그마들을 “여기”에 적용할 의도를 가지고 오는”(15) 전문가들이 카리브해 지역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런 개념들이 카리브 지역에 대한 충실

2) 이 텍스트는 1989년 Ediciones del Norte Hanover에서 최초로 출판되었고, 1998년 “최종판(edición definitiva)”은 Editorial Casiopea에서 출판되었다. 이 글에서는 최종판을 인용하고 있으며 특별한 표시 없는 괄호 안의 숫자는 이 텍스트의 페이지를 지시한다.

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고 파악한 그는 카리브의 복합성과 파편성을 ‘카오스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카오스 이론은 세계 질서를 하나의 단일한 질서가 아니라 일종의 카오스로 본다. 세계는 단일한 질서가 아니라 일종의 “반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질서들”의 체계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것이다(Núñez Rodríguez 2020, 3). 따라서 로호가 카리브해 지역을 “반복하는” 섬들로 구성되었다고 했을 때, 동일자의 반복이 아니라 차이를 포함하는 카오스의 실천을 말한다. 카오스 이론에서 말하는 모든 반복은 동일자의 반복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차이를 실현하는 실천이기 때문이다(17). 반복은 차이를 통해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자연은 보다 복잡적이고 강력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복을 통한 차이와 복합성에 주목했던 카오스 이론을 통해, 베니테스 로호는 카리브 문화가 가진 강력한 힘을 읽어내고자 했다. 즉 카리브 정체성이 갖는 생산적인 성격을 드러내는데 과학 분야의 카오스 이론이 유용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카리브해 지역 연구의 ‘상투적’인 이분법인 “지역을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 혹은 서로 다른 차이를 강조하는 시각”이라는 대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카오스적인 은하수(Vía Láctea de Caos) 읽기”를 제안한다. 이 읽기를 통해 카리브해 지역에서 하나의 고정적이고 실체를 가진 ‘결과물’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선적인 세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무질서 내의 동적인 규칙성을 발견”하고자 한다(54). 결국, 카리브 문화에 존재하는 복합성을 설명하기 위한 “제설혼합주의, 문화동화, 문화접이, 동화, 탈문화화, 원주민화, 크레올화, 문화적 메스티사헤” 등의 담론이 아니라, 이런 복합성을 낳은 구조적인 요인에 주목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을 “플랜테이션의 반복”에서 발견했다(54). 플랜테이션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종족 간, 문화 간 접촉과 충돌에서 새로운 문화와 종족이 배태 착종되는 다양한 과정들이 로호가 말하는 ‘반복하는 섬’의 과정인 것이다.

이렇게 베니테스 로호는 카오스 이론을 통해 카리브해 지역이라는 공간 내

에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질서와 무질서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인 요인이 플랜테이션으로, 플랜테이션이 카리브해 지역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Luis 1992, 1099). 플랜테이션이 여러 힘들이 공존하는 혼돈의 공간이지만, “다양한 학문들의 관점들을 통해서 카리브해 지역이라는 성운의 지속성과 변화들을 관찰하기 위한 망원경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9). 그는 플랜테이션을 통해 카리브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연구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것이다.

베니테스 로호가 카리브해 지역 연구에 있어 플랜테이션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개념은 “특정한 방식(*cierta manera*)”이다(19). 플랜테이션이 카리브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구조적인 공간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방식”은 이 카리브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방식이다. 식민의 언어로 카리브해 지역을 정의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랜테이션이라는 공간과 카리브적인 삶이 갖는 “특정한 방식”에 주목했던 것이다. 베니테스 로호의 텍스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특정한 방식”이라는 표현은 카리브 정체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베니테스 로호가 이 “특정한 방식”을 언급했던 시기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던 때였다(Núñez Rodríguez 2020, 4).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미사일 위기 속에서 핵전쟁의 위협에 직면했던 당시 쿠바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것이다.³⁾ 그는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정부 관료들이 단파 라디오의 뉴스를 듣고, 군인들이 애국주의적인 담론들과 정부 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들떠서 참호에 대기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상황에서 두 명의 흑인 노파가 우리 집 발코니 아래를 “특정한 방식(*cierta manera*)”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특정한 방식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노파들의 주름 접힌 다리 사이에 오래되고 황금빛의 가루가, 노파들의 옷에는 알바아까(*albahaca*)와 허브 향이, 그리고 그들의

3) 1960년대와 1970년대 쿠바를 중심으로 한 냉전 대립에 관해서는 박구병(2016)을 참고하시오.

태도와 잡담들 속에 상징적이고 의식적인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나는 갑자기 묵시론적인 종말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되었다. (...) 카리브해 지역이 묵시론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묵시론 개념은 카리브 문화에서 주요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범죄와 처벌, 전부 아니면 전무, 조국 아니면 죽음, 찬성 혹은 반대, ... 등과 같은 대립항들은 카리브 문화와 거의 상관이 없다.(25)

인용문의 시대적 배경은 미사일 위기 속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선과 악, 삶과 죽음이라는 이분법적인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쿠바의 당대 현실이다. 여기에서 베니테스 로호가 본 것은 “묵시론적인 세계”가 아니라 카리브적인 삶의 양식이었다. 직면한 전쟁위기에도 불구하고 집 베란다 아래를 지나는 두 노파의 무심한 걸음걸이에서 “특정한 방식”, 즉 서구적인 대립 구도 밖에 존재하는 전혀 다른 삶의 양상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카리브적인 존재형식과 가치들을 가능하게 한 “특정한 방식”이 바로 플랜테이션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Núñez Rodríguez 2020, 4). 즉, 베니테스 로호가 카리브해 정체성이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는 카리브 문화에 대한 다른 방식의 읽기를 시도한 것이다. 이 다른 읽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플랜테이션의 반복적인 존재를 지시하는 “카리브 기계(máquina Caribe)”이다(19). ‘카리브 기계’라는 개념을 통해서 베니테스 로호는 식민성과 탈식민성의 대립과 단절의 역사가 아니라, 끝없이 단절하면서 지속되는 연쇄의 과정을 통해 일련의 차이와 변화를 만들어 내는 동력학에 주목한 것이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카리브해 지역의 파편성, 뿌리뽑힘, 산종성 등의 개념은 “규칙적인 차이들”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플랜테이션의 반복적인 존재를 통해 카리브해 지역 내의 차이,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대한 차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57). 플랜테이션을 둘러싼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 플랜테이션은 카리브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플랜테이션에 내재된 폭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특정한 방식”을 통해 카리

브적인 정체성을 조형해 내는 힘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식민과 탈식민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즉, “특정한 방식”의 카리브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랜테이션을 둘러싼 구조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조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초제설혼합주의(supersincretismo)라고 베니테스 로호가 부르는 카리브의 복합적인 제설혼합주의가 “유럽적, 아프리카적, 아시아적 요소들이 대문자 플랜테이션 안에서 접촉하는 것에서 나왔다”(27)고 할 만큼, 카리브 지역의 공통의 기원이자 내재한 다양성의 기원이 되는 것은 플랜테이션이기 때문이다. 플랜테이션과 “특정한 방식”에 대한 자각을 통해, 카리브해 지역은 유럽 식민 강국의 식민지이자 식민 유산의 반복에 불과한 지역이 아니라, 나름의 문화적 조형성을 보여주는 지역이 되는 것이다.

카리브해 지역 내의 내부적 차이를 강조한 민츠(Mintz) 역시도 “카리브 국가들의 대부분은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동일한 현상에 의해 결정된, 서로 나란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56). 플랜테이션의 시작과 확산은 카리브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자 카리브해 문화를 만드는 구조적인 요인인 것이다. 베니테스 로호는 이렇게 플랜테이션(plantación)들이 차이를 반복을 통해 만들어 내는 사회적 총체를 ‘대문자 플랜테이션(Plantación)’이라고 명명한다. 대문자 플랜테이션은 카리브해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적 체계로서 플랜테이션이 반복적으로 존재하면서 만들어낸 “카리브성을 가능하게 한 요소들의 상호 관계 체계”인 것이다(Núñez Rodríguez 2020, 5). 물론, 플랜테이션의 반복과 지속이 대문자 플랜테이션을 만들었지만, 이 대문자 플랜테이션은 서로 균질적인 체제가 아니다. 플랜테이션들이 반복하지만 차이들로 인해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상호 작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노예들은 시기적, 공간적 차이에 따라 외부 환경과 서로 다른 층위의 상호 작용을 보여주었다. 아프리카계 노예가 비인간적인 노동에 내몰려야 했던 플랜테이션이 언제 자리 잡게 되었느냐에 따라 아프리카계 공동체가 원주민 혹은 백인 공동체와 가질 수 있는 관계에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카리브해 지역 내에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Núñez Rodríguez 2020, 5).⁴⁾

베니테스 로호는 이 텍스트에서 “카리브에 대한 재독해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공간을 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15). 이 공간은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이고, 이 플랜테이션의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낸 대문자 플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복은 카오스적인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기제가 된다. 카리브해 지역에서 플랜테이션의 반복은 자연스럽게 차이를 만들고 반복과 차이를 통해 카리브 정체성을 조형해 내고 있는 것이다.

III. 플랜테이션(plantación) 기계의 출현과 플랜테이션 사회(Plantación)

베니테스 로호가 『반복하는 섬』에서 카리브 정체성을 다루기 위해 도입한 개념은 “카리브 기계”이다. 이 개념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계를 차용하여 이론화한 것이다. 베니테스 로호가 말하는 기계는 “서로 연결된 기계들-즉 기계 기계-의 연쇄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 연쇄에서 각각의 기계는 이전 단계의 기계가 만든 흐름을 “단절하면서 연결”한다(21). 동일한 기계가 앞 단계의 기계가 만든 흐름을 단절하기도 하지만 또 연결시키는 역할도 하면서 거대한 기계를 이루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베니테스 로호가 말하는 카리브 기계는 콜론이 이스파놀라 섬에 도착한 이후에 초보적인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곧 선단 형태와 플랜테이션 형태를 띠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카리브 기계는 유럽의 식민주의와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 물질 기반으로, 정복 이후 불과 두세기 만에 자본 축적을 통해서 이른바 상업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 이행하게 했다(Altamiranda 1990, 102-103). 이처럼 카리브 기계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식민적 지배를 가능하게 한 기제였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카리브를 통합하고 카리브해 정체성

4) 플랜테이션(plantación)과 대문자 플랜테이션(Plantación)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문자 플랜테이션을 ‘플랜테이션 사회’로 옮기고자 한다. 베니테스 로호가 말한 플랜테이션과 대문자 플랜테이션의 질적인 차이를 온전하게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그의 문제의식에 가까운 우리말로 판단된다.

을 만들어 낸 구조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반복하는 섬』의 서문에서 베니테스 로호는 콜론이 시작했던 기계의 역사를 순서대로 언급한다. 선단-기계(máquina-flota)에서 플랜테이션-기계(máquina-plantación)로 발전한 카리브 기계는 “콜론의 기계, 코르테스의 기계, 그리고 메넨데스 데 아빌레스의 기계” 등 다양한 형태로 진전해 왔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선단-기계와 플랜테이션-기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각각의 기계가 서로를 단절하면서 동시에 연결하는 기계들의 연속으로 이해하고 있다(89-90). 결국 베니테스 로호가 말하는 “기계 기계 기계”로 이뤄진 기계는 콜론, 코르테스, 메넨데스 데 아빌레스의 기계들로 이어지면서, 단절과 흐름을 지속하는 기계의 연쇄가 되는 것이다.

이스파놀라 섬에 처음 등장한 콜론의 기계는 “망치질로 만든 기계로 일종의 브리콜라주”이자 “중세의 진공청소기” 같은 것이었다. 이 기계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소비되던 이스파놀라의 생산물들을 식민주의적인 필요에 따라 “스페인에 쌓이도록 쇠로 된 입으로 빨아”들이게 된다(20). 카리브해 지역에 존재하던 자연적 질서를 중단시키고, 그것의 흐름을 카리브에서 스페인으로 방향을 틀면서 왜곡시키는 식민적 기구인 것이다. 베니테스 로호는 이것은 식민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유럽의 기획으로, “상업주의적인 실험실”에서 “아프리카의 피로 카리브의 자궁을 수정하려는 기획”으로 등장했다고 본다(19). 카리브를 강제로 수태시킨 후, 유럽 자신의 소비를 위해서 그 자궁의 과실들을 빨아들이기 위한 “중세적인 진공청소기”로 이 기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작동하기 시작한 콜론의 기계는 안데스 지역과 메소아메리카 지역에서 대규모 정복 사업이 벌어지면서 내륙 지역으로 옮겨간다. 이 시기는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가 “테노치티틀란에 있었던 귀금속 일부를 녹이고, 트랜스아틀란틱 파이프관을 통해서 보내기 위해 사치품들을 골랐던 1523년 봄” 무렵이었다(20). 원주민이 이룬 문명의 성과와 원주민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물들을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보내는 점에서 콜론의 기계와 유사했지만, 보다 더 약탈적인 방식으로 유럽 식민자들의 탐욕을 드러내는 기계였다. 그러나 여

기에 해적이 개입하면서 이 방식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스페인의 경쟁 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해적들이 출현하면서 대서양을 통한 재화의 이동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를 해소하고 기계를 보다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이른바 선단 체계였다. 선단 체계가 등장하면서 정복자들은 획득한 재화를 별다른 손실 없이 유럽으로 운반할 수 있게 된다. 페드로 메넨데스 데 아빌레스(Pedro Menéndez de Aviles)가 만든 선단 기계를 통해서 카리브 기계는 질적인 비약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선단 기계는 단순하게 선박들만의 조합이 아니었다. 베니테스 로호가 지적한 것처럼 “해군력 기계, 군사 기계, 관료 기계, 상업 기계, 채광 기계, 정치 기계, 법률 기계, 종교 기계”가 통합된 것으로 매우 복합적인 체계였다. 페드로 메넨데스 데 아빌레스가 이런 구상을 시도한 것은 1562년지만, 완성된 모델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1565년이었다. 식민 초기의 영세하고 초보적인 기계가 선단 기계를 통해 156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계”로 변모한 것이다(21-22).

카리브 기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플랜테이션 기계였다. 초기에는 주로 설탕 생산에 치중했지만 점차 여러 작물로 확대했던 플랜테이션은 식민지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럽 식민국가들의 중상주의적인 기획이 구체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Altamiranda 1990, 102). 설탕 플랜테이션이 이스파놀라 섬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은 대략 1520년대였다. 베니테스 로호에 따르면 카리브 지역의 섬들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재화를 얻지 못한 정복자들이 내륙으로 진출하면서 대규모로 남겨진 땅에서 시작된 것이다. 즉, 여러 이유로 내륙으로 진출하지 못한 정착자들이 남겨진 땅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면서 시작된 것이 플랜테이션의 시초였다. 이 과정에서 선택된 작물이 바로 사탕수수로, 초보적인 기계 장치를 통해 설탕을 얻기 시작했다. 정복지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했던 스페인 왕실 역시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노예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플랜테이션을 지원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플랜테이션이 빠르게 확산되었던

것이다(58). 이스파놀라 섬에 플랜테이션이 등장한 이후에 1523년 자메이카에서 30개의 설탕 제분소가, 푸에르토리코에 10개가 등장하게 된다. 1550년 무렵이면 플랜테이션 농장이 일반화하면서 아프리카계 노예의 수가 백인 인구수를 넘어선다(17).

그러나 카리브 지역에서 증가하던 설탕 플랜테이션은 곧 정체되는데, 주된 요인은 플랜테이션 설치 유지에 필요한 높은 비용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안티야스 제도에서 시작된 플랜테이션들이 내륙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설탕 공급이 대폭 확대된 이유도 있었다. 정복자들의 관점에서 멕시코와 페루의 광산업이 보다 매력적인 산업이 되었던 측면도 있다. 플랜테이션과 달리 자본 투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원주민 노동력을 강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큰 운영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기 플랜테이션을 지원했던 스페인 왕실의 태도 역시 바뀌게 되는데, 플랜테이션을 통해 신대륙에서 자본주의적인 질서가 태동하고 확장되는 것을 꺼려했다. 이런 이유들로 안티야스 제도에서 플랜테이션들이 쇠퇴하게 된 것이다(59-60). 따라서 17세기가 되었을 때, 설탕 플랜테이션은 카리브 지역에서 더 이상 매력적인 산업이 아니었다.

16세기 말경 설탕 플랜테이션은 침체기로 접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스페인어권 안티야스 지역에 자리 잡았던 설탕 플랜테이션은 강력한 영향을 남기게 된다. 카리브해 정체성의 주요한 구성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계 인구 유입을 통해서이다. 이스파놀라 섬에 처음 사탕수수 압축기가 등장한 이후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1518년 스페인은 아프리카 노예들의 대규모 유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⁵⁾ 이 과정을 통해 16세기 후반 들어 안티야스 제도에서 아프리카계 인구수가 백인 정착민 수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또한 설탕 플랜테이션에서 일하고 있는 아프리카계 노예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플랜테이션의 억압적인 본질은 식민 통치의

5) 이에 따라 4년 동안 4천명의 아프리카계 노예들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들 중 2천명이 이스파놀라섬에서 노동에 종사해야 했다. 1540년대 플랜테이션이 일반화되자, 이스파놀라 섬에서 아프리카계 노예들의 수가 3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폭 증가했다.(61)

전체 영역으로 점차 확장되었다(61). 이렇게 아프리카계 노예의 대규모 유입과 플랜테이션의 폭력적 구조는 카리브 지역의 식민성을 대표하는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카리브 해 지역의 식민적 사회구조는 결국 플랜테이션들과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노예 노동에 근간을 두었고, 플랜테이션이 확장되면서 위계적인 식민 구조 역시 보다 심화되었다. 17세기 들어 유럽에서 담배, 카카오, 커피, 면 등 새로운 플랜테이션 작물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플랜테이션과 아프리카계 노예 역시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베니테스 로호가 지적하듯이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생 도밍그(Saint-Domingue)가 가장 대표적이었다(62). 식민적 이익을 통해 설치한 플랜테이션이 노예제에 근간한 식민적 사회질서로 확대되어, 전체 사회를 지배하는 질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베니테스 로호는 플랜테이션(plantación)과 대문자 플랜테이션(Plantación)을 나누고 있다. 대문자 플랜테이션은 플랜테이션들로 인해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적 형식”을 의미한다고 본다(62). 즉, 플랜테이션이 설치되면서 파생되는 여러 사회 경제 구조들이 카리브해 지역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경제 제도로서 플랜테이션의 수준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체제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생산 체제로서 플랜테이션들을 넘어서는 다양한 층위의 복합적인 관계망을 대문자 플랜테이션이라고 본 것이다.

이런 기제들로 된 체계가 또한 카페, 담배, 카카오 등을 생산했고, 나아가 플랜테이션들의 존재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이런 플랜테이션들의 사용과 오용의 결과인 사회 형태의 존재를 의미하는 대문자 플랜테이션을 만들어냈다.(23-24)

베니테스 로호의 지적처럼 생 도밍그를 비롯한 안티야스 제도의 식민지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플랜테이션에서 플랜테이션 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물론 18세기 말 아프리카계 인구의 붕기를 통해서 생 도밍그의 플랜테이션 사회는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카리브해 전역에서 플랜테이션을 해체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쿠바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플랜테이션이 이전되고 그 사회가 플랜테이션 사회로 이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살펴본 것처럼 콜론에 의해 시작된 기계는 스페인 제국의 막강한 해양 지배력을 바탕으로 선단-기계(flota-máquina)로 그리고 이어서 플랜테이션-기계(plantación-máquina)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등장한 플랜테이션은 폐쇄적이고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식민 권력의 이익에 복무했다. 외적인 상황에 맞춰 스스로 변모하면서 보다 더 강력한 기계로 발전했던 것이다. 베니테스 로호에 따르면, 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이후로, 자기 고유의 편의에 맞추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을 만들기 시작했다”(95). 이 플랜테이션 기계는 섬 전체를 플랜테이션 질서가 작동하는 플랜테이션 사회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등장한 플랜테이션 사회는 플랜테이션의 기반이었던 노예제가 폐지되고 식민지에서 독립되었더라도, 여전히 섬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카리브해의 구조적인 요인이 된다(96). 결국, 플랜테이션 사회는 노예 제도에 근간을 둔 식민적 질서의 결과물이었지만, 식민 질서가 제도적으로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식민 질서가 사회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IV. 플랜테이션 기계와 카리브 문화의 차이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플랜테이션 사회 내에서 여러 요소들 사이의 상호 접촉을 통해 ‘조제설혼합주의’가 일상적으로 진행된다(27). 플랜테이션에 아프리카계 노예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던 카리브적인 혼종성이 카리브적인 정체성으로 제도화하게 된 것이다.⁶⁾ 그러나 플랜테이션에서 플랜테이션 사회로 변화

6) 이런 베니테스 로호의 관점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플랜테이션이 카리브해 지역을 정의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카리브해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콜롬비아의 카리브해 지역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카리브해 지역에서 플랜테이션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상호작용의 형식들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반론이다.(Ortiz Cassiani, 216)

하는 과정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지역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서 이뤄졌다(Spitta 1997, 166). 즉, 서로 다른 식민적 경험과 지역적 조건으로 인해 플랜테이션 설치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플랜테이션 사회로의 진화 역시 서로 다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쿠바의 경우 설탕 플랜테이션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8세기에 들어서였다. 플랜테이션이 뒤늦게 제도화되면서 아프리카계 노예들은 그 기간 동안 강제 노동과 억압적 질서가 심했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쿠바의 아프리카계 노예들은 외부 세계와 접촉하면서 쿠바 정체성에 아프리카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다. 반면 바르바도스(Barbados)와 자메이카와 같은 영국 식민지들에서는 플랜테이션 사회가 일찍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해 인구 대다수가 아프리카계 노예들이었지만 아프리카적인 요소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것이다(Spitta, 167). 이들 지역에서 아프리카계 노예들은 플랜테이션에 고립되어 있었고, 설탕 생산이외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플랜테이션 사회가 자리 잡기까지의 시간적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섬 내에서도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조건이 주는 차이들이 아프리카계 인구의 ‘상호 작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베니테스 로호가 카리브해 지역에서 크리오요 문화의 등장을 설명했던 방식은 아프리카계 노예의 상호 작용의 차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이스파놀라 섬에 1520년대 플랜테이션이 출현했지만, 설탕 공급이 확대된 반면 설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탕 플랜테이션은 위기를 맞게 된다. 이 상황에서 이스파놀라의 식민 정착자들이 주목한 것은 가축 산업이었다. 당시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던 가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이스파놀라 섬을 비롯한 다른 카리브 지역이 가축 산업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이스파놀라의 서쪽과 북쪽 지역에 가축 산업에 기반을 둔 사회가 출현하는데, 설탕 플랜테이션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유럽 시장과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교역을 추구했던 이들은 식민적

관료제에서 벗어나려 했고, 노예 노동에 근간을 둔 기존 식민 정착자 집단과는 다른 삶의 형식을 모색했던 것이다. 아프리카계 노예들 역시 설탕 플랜테이션과 달리, 특정 구역에 갇혀 살거나 노동 규칙도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았다(62-64). 이런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아프리카계 문화 역시 훨씬 더 역동적으로 주류 문화와 교섭할 수 있었던 것이다.⁷⁾

이렇게 설탕 플랜테이션과 가내 수공업적인 가족 산업 사이의 차이로 인해, 각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질적인 차이를 갖게 된다. 특히 아프리카계 인구의 문화접이에 있어서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가족 산업과 관련된 크리오요 사회 내에서 아프리카계 노예들은 플랜테이션의 아프리카계 노예들과 달리 유럽인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었다(65). 그러나 보다 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플랜테이션이 설치된 시기에 따른 것으로, 시기적인 차이에 따라 이런 양상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시기상의 차이에 따른 차이는 베니테스 로호가 인용했던 것처럼 킹스턴(Kingston)과 아바나 사이의 차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플랜테이션 사회가 정착된 시기의 차이가 도시 경관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플랜테이션 사회가 빨랐던 자메이카와 늦었던 쿠바 사이에는 약 한 세기에 달하는 시간적인 지체가 존재하는데, 이런 차이가 두 지역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57-58). 앞에 적은 것처럼 스페인은 다른 식민 국가들과 달리 안티야스 식민지에서 18세기 말까지 플랜테이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 이 차이가 스페인어권 섬들과 비스페인어권 섬들 사이에 여러 차이를 가져왔던 것이다. 서로 다른 언어권별 식민지들의 인구 지표를 비교해보면, 스페인어권 섬들에서 전체 인구 대비 아프리카계 노예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들의 식민지보다 훨씬 더 작다고 베니테스 로호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예제에 종속되지 않은 아프리카계 인구 및 몰라토 인구 비중이 비스페인어권 섬들보다 스페인어권 섬에서 훨씬 더 크다고 지적한다(84-85).

7) 플랜테이션 노예와 카리브 예술을 다루고 있는 김용호(2017)의 논문은 플랜테이션노동 및 노예해방의 역사를 카리브 대중음악과 관련해 분석하고 있다.

인구 지표에서 보여주는 의미있는 차이 역시 플랜테이션 설치시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는 카리브해 지역에서 스페인 식민지들이 아프리카계 노예 비중이 적고 상대적으로 백인과 자유민들의 비중이 높은 이유를 플랜테이션 경제가 뒤늦게 자리 잡았던 것에서 찾고 있다. 이런 인구 구성상의 차이는 카리브 지역 내에서 각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도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아바나와 킹스턴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18세기 초반 쿠바가 플랜테이션 구조의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거주 목적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쿠바의 경제 구조는 아직 플랜테이션 기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주로 교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자메이카의 경우는 해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곧 플랜테이션 경제 구조가 지배적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따라서 아바나가 광장, 궁전, 주거지 등을 지닌 도시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킹스턴은 설탕창고, 상업 시설, 노예 숙소 등을 지닌 도시가 되었다. 결국, 카리브의 식민지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들은, 대부분 식민지에서 플랜테이션과 플랜테이션 사회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85-86).

도시 경관뿐만 아니라 카리브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 보다 중요한 아프리카적인 요소 역시 동일한 양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아이티, 쿠바, 그리고 자메이카는 아프리카적 요소가 상당히 영향을 끼친 문화를 보여주지만, 바르바도스(Barbados)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나라로 평가된다. 이런 차이 역시 플랜테이션과 플랜테이션 사회의 형성 시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87). 영국인들이 바르바도스에 도착한 것은 1625년으로, 초기에는 “콜로노, 카리브 원주민, 백인 노예, 범죄자, 추방된 정치범들, 그리고 계약 하인(indentured servants)들”이 주된 노동력이었다. 1645년에는 18,300명의 백인과 5,680명의 노예가 있었다. 그리고 소규모 담배 재배에 기반을 두고 있던 경제 구조가 설탕 플랜테이션으로 바뀌면서, 1667년에는 노예 수가 무려 82,023명으로 늘게 된다. 처음 백인 3명당 1명 꼴로 노예가 존재했다면, 곧 백인 1인당 18명의 흑인 노예의 비율로 흑인 노예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이다(91-92).

반면 자메이카의 경우 16세기 초에 스페인에 의해 식민화되었고, 1655년에 영국이 지배하게 되기 전까지 북부 지역에 크리오요 문화가 발전했다. 이 지역이 스페인 왕실에 의해 봉쇄되었을 때 대규모로 탈주한 아프리카계 노예들이 집단 거주지를 형성했다. 영국이 지배하던 시기에도 자메이카는 주로 스페인 선단에 대한 ‘약탈 산업’의 거점으로 주로 사용된다. 즉, 자메이카의 아프리카계 노예들은 플랜테이션이 아니라, 이 “약탈 경제”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후 스페인과 관계가 회복되자 투자자들은 시선을 돌려 플랜테이션 사업에 주목했다(92). 이렇게 자메이카는 18세기가 되어서야 플랜테이션 사회로 이행을 완성했던 것이다.

베니테스 로호는 자메이카와 바르바도스를 비교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아프리카계 인구 비율이 높다고 해서 아프리카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92-93). 아프리카계 인구의 비중 보다는 오히려, 플랜테이션 사회가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이다. 바르바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플랜테이션 사회가 자리 잡은 자메이카의 경우, 노예건 아니건 간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아프리카계 인구들은 보다 긴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유럽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 자신들의 아프리카적인 요소를 주변 사회에 전파하여 ‘아프리카화’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바르바도스에서 보는 것처럼 아프리카계 노예들이 강제 노동과 폭압적인 사회질서에 종속되어 있었던 플랜테이션 사회에서는, 인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계 노예들이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은 아프리카계 노예들의 문화적 유산을 제약하고, 통제하거나 금기시했다. 아프리카계 인구들 간의 유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반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니테스 로호는 플랜테이션 사회가 조직되기 전에 카리브 식민지에 도착했던 아프리카계 노예는 카리브해 문화를 아프리카화하는 데, 플랜테

이전의 절정 시기 동안에 도착했던 사람들 보다 훨씬 더 기여했다고 결론 내린다. 결국, 카리브 지역 내에 존재하는 아프리카적인 요소의 국가별 차이는 아프리카계 노예들이 카리브에서 행동할 수 있는 유동성(movilidad)의 차이에 있었다는 것이다(93-94). 이렇게 플랜테이션과 플랜테이션 사회라고 하는 조건에서 기인하는 유동성의 차이에 따라 각 지역의 문화적 상호작용은 차이를 가졌고, 그 결과로 카리브해 지역 내부의 차이가 만들어졌다.

V. 나가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베니테스 로호가 플랜테이션과 플랜테이션 사회를 통해서 읽어내려 한 것은 삶의 “특정한 방식” 즉, 카리브적인 존재 방식이다. 이것은 이 텍스트의 부제로 쓰인 “포스트모던”이라는 표현에도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포스트모던”이라는 지극히 서구적인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의 목표는 서구 모더니티와 이 모더니티가 카리브해 지역을 읽어내는 방식을 비판하고 카리브해 정체성을 카리브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특정한 방식”이 실체를 지닌 어떤 것이 아니라, 차이를 지닌 반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베니테스 로호의 지적인 태도는 서구적인 틀에서 벗어나 라틴아메리카 고유의 언어로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정의하려는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쿠바 혁명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그였던 페르난데스 레타마르(Fernández Retamar)에서 시작하여, 코르네호 폴라르(Cornejo Polar)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서구와 차별되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물론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단일한 정체성으로 파악하는 페르난데스 레타마르의 태도를 비판하고, 다양한 정체성들을 주장하는 코르네호 폴라르 사이에는 이론적 대립점이 존재한다. “다양하고, 복수적이고, 혼종적이고, 이종적인 혹은 통문화적인” 조건을 강조하는 코르네호 폴라르와 “우리 아메리카”라는 이론적 전제 뒤에 있는 통합적인 태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Ramírez 2014,

299).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적인 사유틀로 라틴아메리카 현실을 읽어내려는 시도는 쿠바 혁명 이후로 지식인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베니테스 로호의 이론적 태도 역시 이런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적인 사유를 강조하는 태도는 지배 문화와 피지배 문화라는 이분법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유럽적인 것과 타자적인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의 ‘포스트모던’이라는 문제 제기는 근대적인 이분법, 즉 “대서양 모더니티”를 넘어서려는 지적인 전략이지, 서구 근대성의 극복이라는 지극히 서구적인 이론틀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태도가 플랜테이션과 플랜테이션 사회라는 구조적인 틀 내에서 진행되는 반복과 차이에 주목하면서 카리브 문화의 특수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이론적 태도는 전근대, 근대, 포스트모던을 넘어서 “크레올화된 혹은 혼종화된” 현실을 잡아내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평가도 가능한 것이다(Ramírez 2014, 300).

그는 카리브해 정체성이 본질적이거나 안정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차이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메스티사헤 혹은 ‘우리 아메리카’에서 말하는 동질적인 실체로 카리브 정체성을 구상하지 않는 것이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플랜테이션이라는 구조적인 요인 속에서 차이를 가지고 반복되는 어떤 것이다. 이처럼 베니테스 로호는 플랜테이션과 플랜테이션 사회를 통해 카리브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관심사는 플랜테이션과 관련된 역사적, 경제적인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들어내는 중심과 주변이 없이 차이를 가지고 반복하는 문화적인 양상의 구조인 것이다. 카리브해 정체성에 차이를 가지고 반복하면서 특정한 연속성을 부여하는 구조적인 요인에 주목한 것이다. 이 구조적인 요인인 기계가 앞 단계를 단절하면서 연결한다는 그의 지적에서 보듯이, 하나의 단일한 구조로 축소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연속과 불연속성을 통해 카리브해 정체성의 복합성을 드러낸다.

베니테스 로호의 이런 고민을 통해 신대륙 수탈의 도구이자 유럽 식민주의

의 유산으로 폄하되던 플랜테이션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플랜테이션에 대한 상투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는 그의 통찰은 플랜테이션 기계의 회복력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플랜테이션 기계는 섬마다 다른 플랜테이션 모델들이 다양하고 각각의 조건에 맞게 생존할 수 있는 재생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플랜테이션은 노예제가 폐지되거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되거나 혹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했다. 지배 구조로 자리 잡은 플랜테이션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은 탈식민적인 비판의 지점이기도 한다. 그러나 베니테스 로호는 플랜테이션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플랜테이션 사회라고 하는 카리브의 식민적 사회구조를 만들고 유지시키고, 그 영향을 남기는 구조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베니테스 로호는 서구적인 것과 카리브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카리브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탈의 도구로 간주된 플랜테이션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카리브해 정체성에 일정한 통합성과 차이를 주는 요소를 플랜테이션과 관련된 요인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호(2017), 「카리브 대중음악 칼립소에 관한 연구: 기원에서 카리브통합운동까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8, No. 2, pp. 89-116.
- 박구병(2016), 「라틴아메리카의 ‘뜨거운 냉전’과 종속의 심화(1945-1975)」,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7, No. 3, pp. 133-157.
- 박구병(2019), 「이베로아메리카사: ‘국내 최초’ 연구의 외연 확대」, 『역사학보』, No. 243, pp. 381-393.
- Altamiranda, Daniel(1990), “La isla que se repite. El Caribe y la perspectiva posmoderna,” *Chasqui*, Vol. 19, No. 2, pp. 101-104.
- Badiane, Mamadou(2010), *The Changing Face of Afro-Caribbean Cultural Identity: Negrismo and Negritude*, Lanham: Lexington Books.
- Benítez Rojo, Antonio(1998), *La isla que se repite: El Caribe y la perspectiva*

- posmoderna*, edición definitiva, Barcelona: Casiopea.
- (2003), “Creolization and Nation-Building in the Hispanic Caribbean,” *Mata tu*, Vol. 27, No. 1, pp. 17-28.
- Boyer, Amalia(2020), “Contrapunteo Deleuze-Guattari/ Benítez Rojo: Diferencia y repetición de la isla en la geofilosofía del Caribe,” *Universitas Philosophica*, Vol. 37, No. 74, pp. 231-251.
- De la campa, Román(2012), “El Caribe y su apuesta teórica,” *Zama*, Vol. 4, No. 4, pp. 25-38.
- Díaz Quiñones, Arcadio(2007), “Caribe y exilio en la isla que se repite de Antonio Benítez Rojo,” *Orbis Tertius*, Vol. 12, No. 13, pp. 1-17.
- Faundez-Reitsma, Ivelise(2007), *De ciertos espacios:(des)cifrando el Caribe en las obras de Antonio Benítez Rojo*, Doctoral Dissertation, Washington University.
- Fuchs, Rebecca(2014), “Decolonizing the Plantation Machine as the Curse of Coloniality in Caribbean Theory and Fiction,” *FLAR*, Vol. 7, No. 3, pp. 98-117.
- Hoeg, Jerry(1997), “Cultural Counterpoint: Antonio Benítez Rojo’s Postmodern Transculturation,” *Journal of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Vol. 6, No. 1, pp. 65-75.
- Luis, Wiliam(1992), “Order and disorder in Caribbean thought and literature,” *Callaloo*, Vol. 15, No. 4, pp. 1099-1101.
- Maíz, Claudio(2015), “El caos como un ‘orden’. Críticas caribeñas a la modernidad trasatlántica,” *Revista Letral*, No. 15, pp. 30-38.
- Morón Castro, Camilo; Moreno Acero, Iván Darío(2018), “Política del caos en el pensamiento epistémico caribeño de Antonio Benítez Rojo,” *Memorias del XV simposio iberoamericano de filosofía política Medellín, 2017*, Asociación Iberoamericana de Filosofía Política Universidad Pontificia Bolivariana: Editorial Universidad Pontificia Bolivariana, pp. 77-90.
- Núñez Rodríguez, Xiomara(2020), “Las otras islas del Caribe: Una revisión del concepto de meta-archipiélago a través de los discursos identitarios de las islas canarias y el archipiélago antillano,” *Anuario de Estudios Atlánticos*, No. 66, pp. 1-16.
- Ortiz Cassiani, Javier(2008), “Abello Vives, Alberto (comp.), *Un Caribe sin Plantación. Memorias de la cátedra del Caribe colombiano*. San Andrés: Universidad Nacional

- de Colombia,” *Historia Crítica*, No. 35, pp. 215-218.
- Ramírez, Liliana(2014), “El pensamiento de antonio Benítez rojo: ‘Un estremecido colibrí bebiendo de una flor’,” *Cuadernos de Literatura*, Vol. XVIII, No. 36, pp. 296-309.
- Russ, Elizabeth Christine(2009), *The Plantation in the Postslavery Imagin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ilva, María Guadalupe(2009), “Del insularismo al meta-arghipiélago: el Caribe según Antonio Benítez Rojo,” Celina Manzoni(ed.), *Errancia y escritura en la literatura latinoamericana*, Alcalá: Alcalá La Real, pp. 95-112.
- Spitta, Silvia(1997), “Transculturation, the Caribbean, and the Cuban-American Imaginary,” Aparicio, F. R.; Silverman, S. C.(eds.), *Tropicalizations: Transcultural Representations of Latinidad*,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Valdés García, Felix(2016), “El Caribe Insular: entre la realidad y la subversión epistémica,” *Revista de Estudos e Pesquisas sobre as Américas*, Vol. 10, No. 2, pp.1-18.
- Viala, Fabienne(2014), *The Post-Columbus Syndrome: Identities, Cultural Nationalism, and Commemorations in the Caribbean*, Palgrave Macmillan US.
- Villa Chiappe, Santiago(2005), “En torno al Caribe: Arciniegas y Benítez Rojo,” *Historia Crítica*, No. 29, pp.185-195.

이성훈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anselmus@snu.ac.kr

논문투고일: 2020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20년 12월 17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7일

La isla que se repite and Caribbean Studies: Focusing on the Concept of Plantation

Seong-H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Seong-Hun(2020), “*La isla que se repite* and Caribbean Studies: Focusing on the Concept of Plantation”,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1(3), 99-122.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concept of plantation shown in *La isla que se repite: El Caribe y la perspectiva posmoderna* of Antonio Benítez Rojo. Although the term of ‘the Caribbean region’ is commonly used, there is also an opinion that emphasizes internal differences due to geographical, cultural and historical diversity. This is because there are many internal differences due to differences in language, geographical conditions of the island, and differences in historical experiences. In this situation, Benítez Rojo’s idea on *La isla que se repite* suggests an understanding of the commonalities and internal differences that exist in the Caribbean.

Benítez Rojo explains that while the plantation was a structural condit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Caribbean identity, the internal differences existing in the region are also related to plantation installation. The timing of the plantations in the Caribbean varies due to various factors, which have made meaningful changes in relation to the activities of African slav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eas where African slaves were able to actively interact with other cultural factors, and those that were not, led to cultural differences within the Caribbean. Benítez Rojo’s *La isla que se repite* focuses on structural factors that create regional differences within the Caribbean.

This text has a different meaning from conventional Caribbean discourse in that it is attempting a theoretical model that can encompass the Caribbean. While it has been a common trend in Caribbean region studies to pay attention to and explain these cultural aspects, it is because Benítez Rojo looks for structural factors that have brought these cultural aspects, and explains the cultural diversity and commonalities in the Caribbean in relation to structural factors.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follow Benítez Rojo’s explanation and examine the meaning of plantation in the formation of Caribbean identity.

Key words *La isla que se repite*, Caribbean Studies, plantation, Caribbean culture, african slaves